

전북연구원 보도자료

아름다운 산하 응비하는
생명의 삶터, 천년 전북!

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
전북연구원(T.063-280-7100/F. 286-9206)
<http://www.jthink.kr>

- 문의 : 연구본부장 이강진 연구위원
(063-280-7141)
- 담당자 : 산업경제연구부 서환석 부연구위원
(063-280-7145)

보도시점 : 2021년 7월 29일(목)부터

가정간편식 성장에 따른 전북의 대응 전략 필요

- 국내 가정간편식 성장에 따른 식품기업 원재료 공급체계 및 산업화 지원
- 스마트 식품안전 및 물류·유통시스템 구축을 통한 혁신 유통 플랫폼 구축
- 지역인증제 및 맞춤형 시장개척을 통한 소비 및 신뢰 구축

-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 19)의 여파로 가정간편식 (Home Meal Replacement; 이하 HMR) 시장의 고도화가 지속되고 있으며, 제품군의 다양화 및 차별화도 지속되고 있다. 전북연구원 (원장 권혁남)은 『국내 가정간편식(HMR) 시장의 성장과 전북의 대응방안』이라는 이슈브리핑을 통해 가정간편식 동향 및 여건을 살펴보고, 전북의 대응 전략을 제안했다.
- 1인 가구의 증가와 여성의 경제활동의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개인 당 식사를 준비하는 시간과 비용이 증가되고 있으며, 가정간편식 (HMR)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. 전북연구원은 확대되고 있는 가정간편식(HMR) 시장의 변화를 전북의 관점에서 생산, 유통, 소비 분야로 구분하여 대응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.
- 서환석 박사(연구책임)는 가정간편식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소비 및 신뢰 구축을 위해 세 가지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.

- 첫째, 원재료 공급체계 구축 및 산업화를 위해 전북 식품소재 및 반가공 원재료 수급체계 구축이 필요하고, 국내 유통·소비되는 식품정보를 보유한 식품정보 플랫폼을 조성하여 식품정보를 DB화 하고 이를 지역 내 식품기업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. 전북의 식품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서 자금지원과 제품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, 가정간편식 신기술들을 식품기업들에게 기술이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.
- 둘째, 혁신 유통 플랫폼 구축을 위해 식품기업들의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스마트 식품안전체계의 도입이 필요하고, 신선 식품의 당일 배송이 가능하도록 콜드체인(Cold Chain) 기반의 물류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. 그리고 가정간편식(HMR)과 로컬푸드를 접목하여 지역의 식품소비의 신성장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.
- 셋째, 소비 및 신뢰 구축을 위해 지역 로컬푸드를 사용한 가정간편식 식품기업에게 지역인증제를 부여하고, 전북 고령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.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한 영양밸런스를 갖춘 식단을 구성하여 배달하는 먹거리 복지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.